



뉴스 기획 | **중소농 소득 보장되는 청양 푸드플랜**
 ■ 우리 지역 푸드플랜을 소개합니다 - 충남 청양 | 민동주 기자 | ncb56@naver.com

2022.02.04 18:25:49

충남 청양 50대 농촌여성 A씨는 하우스 없이 노지에서 1320㎡(400평) 복합영농을 하는 소농이지만, 두 달을 일궈내면 생업인 농사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소농 중심의 청양의 푸드플랜 기획생산농가에 참여해 꾸준히 2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획생산농가를 모집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정한열 상임이사(가)가 있어 가능했다.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정한열 상임이사는 푸드플랜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도시민 거닐만한 공공급식·먹거리매장 판로 개척 농산물기초가격보장제로 생산농가 조직 활성화

- 푸드플랜정책이 설립된 배경은?
 청양군민 3만2000명 중에 1만2000명이 농업인이다. 농산물 공급에 비해 소비시장은 부족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 정책으로 시작된 푸드플랜에 지원해 청양군 푸드플랜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했다. 이를 위해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푸드플랜팀이 신설됐다.

행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면, 지역활성화재단은 현장에서 전문성과 실행성을 높여 역할을 분담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예산에 수반돼 내려온다.

- 지역농산물 소비 현황은?
 청양은 대도시로 나가 관계시장 확대에 주력했다. 대전광역시 화학특기개발에첨착지구에 청양먹거리직매장을 오픈하고 지난해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은 단순 판매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호응하는 공간으로 대전 중충장애아동센터와 생대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전공공급식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 17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화학연구원 2개 기관에 청양 농산물을 급식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만 3만 명에 달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직원은 1천700명이다. 관내 학교급식이 3400명인 것에 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급식을 성사시켜 보람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머리를 맞대고 6개월 동안 협력했다. 대규모 공공급식 결렬이 선례가 돼 별다른 홍보 없이도 관내 매장 산업 일직원이 찾아와 공공급식을 요청했다.

- 푸드플랜을 추진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청양에서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취약계층 복지급식을 운영하며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복지급식에 역점하고자 한다. 지난해 경로당 63곳으로 취약계층 복지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재료를 발주하는 소비자가 부녀회장인데, 고령화로 전산화시스템 적용이 어려워 지역활성화재단 직원이 직접 해당 경로당으로 출장을 가야했다. 한정된 인력 문제로 취약계층 복지급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단체와 업무협약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택배사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근황을 살피고, 푸드플랜을 통해 공급의료문제, 사회복지, 농업문제를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기반을 다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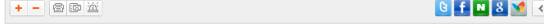
- 기획생산농가가 되면 좋은점?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은 100%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한다. 군수 품질인증제 '칠갑마루'도 무료 제공하고, 관련 포장재와 스티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다. 기획생산농가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특화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뭇논이 농산물을 갖고 20~30개 가공식품으로 소량 만들어 매장에 납품하는 용로도 하다. 지역활성화재단의 가공지원팀은 농산물 수요 예측, 현장에서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참여 농가에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해법 인중에 까다로운 서류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직매장 농산물 유통과정과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등 기획생산농가를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4~5명으로 인원을 늘려 기획생산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농사규모에 상관없이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목적으로 청양 농업인들에게 푸드플랜정책을 더욱 상세하게 알리는 데 공을 들이겠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메세지 (0)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8221

-2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한글 0 byte / 최대 400byte)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정책]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메세지 (0)

연기기사

- 부활절
- 역대 최고 시장개방 펼친 첫정부,
- 수출대 오르다
- "속속한 마음, 햇볕으로 말리세요~"
- 양산농업 성장잠재력 최대론 이끈다
- 농촌여성인 농촌문화의 수요자이자 길
- 아라도 갈 길 먼 양생공동, 여기부터
- 심사위원 부문 아산쌀로 비롯해 온정

실시간 뉴스

- ▶ aT-콘덴츠진출, 수출활성화저탄소
- ▶ 산지관리 제도개선 아이다이 공모
- ▶ 무인방제로 노지잡곡 병해충 해결
- ▶ 박병중 농진실장, 강원 스마트팜체계
- ▶ 성남시생활개선회, 반찬으로 전하는
- ▶ 경남도, 청년농업인-대학생 소통 간
- ▶ 전남농업기술원, 노후공영이버섯 산
- ▶ 전남, 유기 인증농가 농작물재해보험
- ▶ 1분기 경북 농식품수출 역대최고
- ▶ 코로나19로 5060 인터넷방송 소원 증
- ▶ 여섯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규율 대폭